

'색의 힘'을 느껴요

5 March, 2016 | 윤현숙 기자

page 1 of 3





<앵커>

봄이 오는 길목에 서 있는 요즘, 봄에 딱 맞는 화사하고 다채로운 색을 주제로 눈을 즐겁게 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. 반대로, 묵직하고 깊은 힘을 전달하는 단색화 거장의 전시도 진행되고 있는데요. 윤현숙 기자가 소개하는 색의 향연을 경험해보시죠.

<기자>

국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 단색화.한지의 원료인 닥을 이용해 단색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화가가 있습니다. '그리지 않는 단색화'의 주인공 고 정창섭 화백입니다. 물에 불린 닥에 색을 들이고, 캔버스 위에 올려 손으로 두드려 독특한 질감과 선을 만들어냈습니다. 한국의 기와나 백자를 연상시키는 간결한 단색이지만, 붓이 표현해낼 수 없는 깊고 미묘한 색의 변화가 담겨있습니다.

[전민경 / 국제갤러리 대외협력 디렉터 : 정창섭 선생님의 색깔을 보시면 한가지의 규정된 색이 아니라, 여러 가지 색, 빛에 따라 보여지는 특징들이 다양합니다.]

서양화의 영향을 받았던 60년대 초기작부터, 고유의 기법을 발전시켜나갔던 1980년대 '닥' 연작과 2000년대까지 이어진 '묵고' 연작 등 작가의 작품 생애 전 궤적을 볼 수 있는 30여 점이 전시됩니다. YTN 윤현숙입니다.